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삶의 유형과 특징: 진로 관련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김아람** · 김주희*** · 김진원****

I 알기 쉬운 개요

니트(NEET)는 일하거나 교육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니트 청년이 늘어나는 현상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이슈가 되어 왔으나, 대졸자의 수가 많은 한국의 맥락에서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12명의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을 연구 참여자로 초대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삶에 주목하였다. 개별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진로 관련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며, 자료 분석과정에서 이들의 현재 삶의 양상을 '진로 결정 수준'과 '취·창업'을 위한 구직활동의 적극성 정도'의 두 축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연구 결과,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삶의 양상을 '목표 돌진형', '휴식·유예형', '방향 없는 성실형', '군입대 제약형', '경계 없는 탐색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도출하였으며, 이들 각각의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삶이 단일한 것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들의 복잡다단한 삶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이 논문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수행한 김진원 외(2022)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태와 과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C2A03088815).

** 숙명여자대학교 연구교수

*** University of Michigan, 박사과정

****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교신저자, kjw0912@gie.re.kr

투 고 일 / 2023. 9. 1.

심 사 일 / 2023. 12. 13.

심사완료일 / 2023. 12. 21.

I 초록

본 연구는 일하지도 교육받지도 않은 니트(NEET)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삶의 양상을 살펴보고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 12명을 연구 참여자로 초대하여 면담, 설문 및 문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 결정 수준(결정, 미결정)'과 '취·창업을 위한 구직활동의 적극성 정도(적극, 소극)'를 두 축으로 삼아 '목표 돌진형', '휴식·유예형', '방향 없는 성실형', '군입대 제약형', '경계 없는 탐색형'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결과 중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되지 않은 20대 초·중반 남성 청년들에게 있어 '군입대'가 그들의 진로 준비에 걸림돌이 되며, 진로 결정을 미루는 등 '일시적' 니트 상태에 놓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고졸 청년들 가운데 자신의 목표를 향해 고등학교 때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대학이 아닌 비공식 기관(학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배움을 얻는 '목표 돌진형' 청년들이 있었다. 나아가 분명한 목표는 없을지라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경계 없는 탐색형' 청년들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삶을 단일하고 단계적인 것으로 가정하여 취·창업 준비나 일률적으로 경제적인 비용 지원 등의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양상과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지원 정책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고졸 청년,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 니트(NEET), 질적 사례연구

I. 서 론

일하지도 교육받지도 않는 청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조사(2023)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20대와 30대 수가 66만 명에 달하여 20년 만에 처음으로 40·50대를 넘어섰다(통계청, 2023). 고용 통계상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없이, 일할 능력은 있지만 막연히 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은 흔히 니트(NEET)¹⁾라 일컬어지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청년의 수 또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다(김성아 외, 2022).

청년들의 니트 현상이나 고립·은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은 비교적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청년층(25세~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69.3%에 달할 정도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편이기에 니트 현상과 관련하여서도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들은 대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일부 연구가 고졸 비진학 청년(김안국, 신동준, 2007; 남미자, 박진아, 이해정, 2019; 임유진, 정영순, 2015) 혹은 고졸자를 포함한 니트 청년에 주목하였으나(노혜진, 2021; 이로미, 박가열, 정연순, 2010; 홍진주, 2020), 이들 연구도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채 바로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우 학교에서 일터로 전환되는 근로이행기에 놓여있기에(이은정, 2007), 이 전환기를 무사히 완수하는 것이 청년들의 니트 상태 장기화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중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들이 그동안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소외됐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학벌주의가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단순히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뿐 아니라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려는 대학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이건만, 2007; 엄수정, 송요성, 2021). 이러한 상황에서 고졸자들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시 고용의 양과 질의 측면에서 대졸자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최지수, 김은비, 2019).

사회 초년생으로 학교의 울타리를 막 벗어난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들이 필요한 직업교육이나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이들이 건강한 성인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 나가는

1) 니트(NEET)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혹은 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의 줄임말이다. 교육받지 않으며 일을 하거나 훈련을 받을 의지가 없는 이들을 의미한다.

것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을 위한 교육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들이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지 않은 20대 초·중반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삶의 양상을 파악하여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단일하게 펼쳐지지 않는다. 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고교졸업 후 대학 비진학·미취업 상태에 이르렀으며, 현재에도 각자의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현재 대학 비진학·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이들의 현재 삶의 양상을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삶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으며, 유형별 삶의 양상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이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0대 초·중반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이 장기적인 니트 상태에 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분석

1.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삶에 관한 연구

그동안 국내에서 고졸 청년의 경험과 삶에 관한 연구는 교육학, 사회복지학, 문화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수행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청년허브 등 다양한 관련 정책 기관에서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고졸 청년 가운데서도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에 주목한 연구의 수는 많지 않은 편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 고졸 취업 청년, 니트(NEET) 청년 등’을 다룬 연구를 포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대학 비진학 청년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 비진학 결정은 다양한 개인 및 사회구조적 요인을 바탕으로 복잡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요인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낮은 학교 성적, 높은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 등이 제시된다(윤민중, 김기현, 2016; 이해정, 박진아, 남미자, 2018). 한편, 비진학 청년들이 포착한 입시중심의 질서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대학교육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청년들의 대학 비진학을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은 주목할 만 하다(김영미, 김진경, 윤민중, 2018; 이해정 외, 2018).

대학 비진학 결정과 더불어, 대다수의 청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전 또는 직후 노동시장 이행을 준비한다. 그러나 고졸 비진학 청년층은 학교에서 직업세계 이행을 체계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유형과 성별 등 청년들의 다양한 특성이 노동시장 이행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었다(김안국, 신동준, 2007; 이은정, 2007). 일부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특성화고 졸업 청년과 고졸 여성 청년이 저임금·비숙련·장시간 노동, 단속적 경력 축적, 직장 내 소외 등을 경험하는 점이 드러났다(김정선, 김지영, 추주희, 2016; 남재욱, 김영민, 한기명, 2018; 전누리, 김은경, 공현, 2019;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이정표, 2004; 임언 외, 2016). 하지만 체계적인 직업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일반고 졸업 청년이나 군입대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이행이 매끄럽지 않은 남성 청년의 특수성에 주목한 연구는 여전히 부재하다.

한편, 고졸 청년의 삶의 맥락을 두텁게 이해하기 위해 빈곤 경험을 다룬 연구가 존재한다(남미자 외, 2019; 박진아 외, 2017; 이해정 외, 2018). 빈곤이라는 사회구조적 원인이 고졸 청년의 대학 비진학 결정뿐 아니라 이들의 졸업 이후의 삶, 특히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노동시장 안팎에서 마주하는 차별 및 배제 경험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이다(이해정 외, 2018). 몇몇 선행연구는 고졸 청년 또는 니트 청년이 마주하는 배제 경험을 분석한 바 있는데, 홍진주(2007)는 니트 청년의 삶을 ‘복합적 배제로 고립무원의 회색지대에 갇힘’이라 정리하고, 도움 받을 곳 없이 무력감을 느끼는 니트 청년의 모습을 그렸다. 구체적으로 니트 청년들은 유예기간에 의한 삶의 의욕 저하,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의 회귀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노혜진, 2021; 정수남, 김정환, 2017). 이와 관련해 고졸 청년의 적절한 대인관계의 형성 및 역할 모델 설정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지만(최동선 외, 2014),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을 둘러싼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은 논의된 바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는 연구 초점에 따라 고졸 청년 혹은 니트 청년의 특정 경험에 주목하였으나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현재 삶의 양상을 폭넓게 분석하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고졸 청년을 다룬 연구일지라도 연령대를 19세~34세로 폭넓게 규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거나(남재욱 외, 2018), 특정 유형 고등학교 출신으로 연구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남미자 외, 2019; 임언 외, 2016) 후기 청소년 시기(20대 초·중반 청년)에 놓여 있는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은 ‘고졸 청년’과 ‘니트 청년’의 범주에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도 취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후기 청소년기 청년의 삶은 30대 초반 청년이나 대졸 니트 청년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맥락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고등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 대학이라는 완충지대 없이 곧바로 사회에 진입해야 하기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졸 비진

학·미취업 청년을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인 후기 청소년기(20대 초·중반) 청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현재 어떻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2.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유형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을 다룬 연구가 부재하기에, 이들을 유형화한 연구도 찾기 어려웠다. 다만 선행연구 가운데 일부는 대학 비진학 청년이나 니트 청년의 삶을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는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삶을 분석하기 위해 이 같은 연구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범주 내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유형화한 김지경과 이광호(2013)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를 수행하면서 후기 청소년 연령(19세~24세)에 해당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유형1] 취업자, [유형2] 구직자(실업자), [유형3] 진학·취업·창업 준비자, [유형4] 니트(NEET)’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경우, 유형1의 취업자와 유형3 가운데 대학 진학 준비자를 제외한 청년들을 지칭한다.

다음으로 니트(NEET)의 유형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우선, 유럽연합은 구직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 니트’와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인 ‘비구직 니트’로 구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 실업자 집단(the conventionally unemployed)’, ‘가족 돌봄이나 가사, 질병 및 장애와 같은 사유로 인해 니트가 된 집단(the unavailable)’, ‘능력부족과 의욕저하, 사회부적응 등으로 인해 니트가 된 집단(the disengaged)’, ‘더 좋은 기회를 추구하며 노력 중인 집단(the opportunity-seekers)’,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니트가 된 자발적 니트 집단(the voluntary NEETs)’으로 분류하였다(Eurofound, 2012: 24).

국내에서 니트 청년을 유형화한 연구로는 이로미 외(2010)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니트 청년 중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성적 위축형’, ‘꿈꾸는 프리터형’, ‘진로 미숙형’, ‘수험형’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성적 위축형’은 저학력과 내성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무기력감으로 인해 구직 범위를 자발적으로 제한한다. 이들은 첫 직장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호소하며, 일자리를 구할 때도 최소화된 대인관계를 중시하였다. ‘꿈꾸는 프리터형’은 조직이나 소속감, 규율 등을 기피하며 대안적인 삶을 소망하는 청년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활동을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해석하지만, 학력이나 네트워킹 부족 등은 이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장벽이다. ‘진로 미숙형’은 고용 안정성과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동경한다. 그러나 자기 명확성이 부족하고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계속해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진로 결정을 유예하였다. 마지막으로, 낮은 진로의식과 가족의 강한 후원을 배경으로 하는 ‘수험형’은 고용 안정성과 공정한 경쟁에 대한 희구로 수험생활을 지속하고, 취업을 고려하다가도 다시 수험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연구자들은 니트 청년의 스펙트럼이 다양함을 강조하며,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진로개발 및 청소년기의 진로교육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추가적으로 니트 청년의 경험과 특성에 따른 유형으로 ‘결핍형’, ‘준비형’, ‘소진형’, ‘대안활동형’을 제안한 정연순 외(2013)의 연구가 있다. ‘결핍형’은 취업을 위한 제반 여건이 부족한 유형으로, 직업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며 일할 의사와 기초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등 정서적·건강적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을 뜻한다. ‘준비형’은 취업 목표가 분명히 있으며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리는 집단으로 공무원,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준비한다. ‘소진형’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지쳐서 당분간 휴식을 희망하며 일시적 미취업 상태에 있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칭한다. ‘대안활동형’은 의미 있는 활동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문화예술 분야나 여행과 같은 자유로운 활동 혹은 자원봉사 등을 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는 특성을 보인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니트 청년의 경험과 특성을 여러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는 고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도 일하지도 않는 상태에 있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특징을 구분하여 살피기는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이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는 12명의 대학 비진학·미취업 청년을 연구 참여자로 초대하여, 이들의 삶이 현재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계를 가진 사례’(Creswell, 2010: 111)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는 청년 중에서도 대학생이나 대졸자가 아닌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을 사례로 경계 지어, “더 상세하고, 더 풍부하고, 더 완전하고, 더 많은 변화를 다루는”(Flyvbjerg, 2014: 443)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별로 2회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간략한 설문이나 연구 참여자의 SNS 게시물 등 연구 참여자가 제공하는 문서를 연구 자료로 포함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졸업한 고등학교의 유형과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사례를 구성하였다. 많은 선행연구가 특정 성별 또는 특정 고등학교 유형 졸업자의 비진학·미취업 경험을 주로 다루고 있었기에(김영미 외, 2018; 남미자 외, 2019; 문상균, 최재성, 2017; 이정표, 2004),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들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가 무엇인지에 주목하는 다중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자료수집

연구자료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개별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진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 2인과의 비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생애를 이해하고, 본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하여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을 개발하였다. 면담 질문은 크게 ‘개인 특성, 중·고등학교에서의 삶,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삶과 현재의 일상생활, 교육 요구,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을 위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을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인 후기 청소년 연령(만 19세~24세)에 해당하는 20대 초·중반인자로 규정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대 초·중반인자를 연구에 초대하고자 하였다.²⁾ 그러나 연구 참여자 공개 모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2명의 참여자(김은혜, 이다윗)가 지원하였고, 연구진은 이들과 사전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결과 김은혜의 경우 고학력 부모의 지지 아래 자발적으로 고졸 비진학을 선택한 사례이고, 이다윗은 연구 참여자 중 유일하게 20대 초반 장기간의 은둔 생활 경험이 있는 청년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들의 경험이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고졸 비진학 청년의 하위집단이 중층적이라는 점과 고등학교 졸업 유형에 따라 경험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2) 본 연구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연구로, 2회의 면담이 진행되던 특정 시기에 청년 3명(공은철, 이빛나, 이동휘)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었다. 나머지 9명의 청년은 연구가 진행되던 시점에 1시간도 일하고 있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궤적이나 경험의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이전 아르바이트나 일 경험을 포함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고 졸업 비진학·미취업자 5명, 특성화고 졸업 비진학·미취업자 5명, 기타(대안학교 및 검정고시) 비진학·미취업자 2명, 총 12명의 청년을 연구 참여자로 초대하였다. 전체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이름 (가명)	성별	나이 (만)	거주지	졸업고교 유형	경제적 상황	미취업 기간	비고
1	김은혜	여	28*	경기	일반고	중	1년 이상	-
2	최수연	여	19	경기	일반고	하위	3~6개월	위탁과정
3	강호준	남	20	경기	일반고	중	1년 이상	-
4	정민아	여	19	경기	일반고	중하	1년 이상	-
5	박민욱	남	20	경기	일반고	중하	1년 이상	-
6	이빛나	여	24	경기	특성화고	중하	1년 이상	회계전공
7	이동휘	남	20	경기	특성화고	중	3~6개월	세무전공
8	김동민	남	19	경기	특성화반	하	1년 이상	경영전공
9	김셋별	여	20	서울	특성화고	중하	1~3개월	농업전공
10	공은철	남	19	경기	특성화고	최하	1년 이상	재무전공
11	이다윗	남	27*	부산	검정고시	중하	1년 이상	일반고중퇴
12	김주환	남	19	충남	대안학교	중하	1~3개월	-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 ‘공개 모집’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세 가지 루트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먼저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풀(pool)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구직자 및 미취업자(취업희망자)’에 해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였고,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 이들을 우선 섭외하였다. 둘째, 현직 고등학교 교사(일반계고 및 전문계고 포함)나 연구자의 소개를 통해, 비진학·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학생 중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표한 이들을 비공식적으로 소개받았다. 마지막으로,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구 참여자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청년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모집을 진행하였다. 모집 결과, 이다윗을 포함한 3인의 청년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지원하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세 가지 모집 경로를 통해 초대된 12명의 청년 각자와 1회당 60분 내외로 2회씩의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지만, 면담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므로 연구 윤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우선 연구 참여자를 공개 모집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을 연구 참여자로 초대하였으며, 연구가 시작되기 이전에 연구 내용과 과정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 뒤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 설명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녹취한 기록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결코 사용되지 않음을 충분히 고지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로 면담 1회당 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하고, 연구 참여가 중단될 경우 연구 참여자가 제공한 면담 및 녹취 자료는 전부 폐기되어 연구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가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최종 연구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의 과정에서 추가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공동 연구진이 분석한 내용을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새로운 키워드나 주제를 중심으로 재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먼저, 연구진은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모두 전사한 뒤,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검토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드러난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아내었다. 구체적으로는 Creswell(2012)의 사례 내 분석을 통해 개별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 비진학을 결정하고 현재 비진학·미취업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현재 삶의 양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사례 내 분석 시 연구진은 개별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고등학교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성과 구체적인 경험의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Clandinin & Connelly, 2007).

사례 간 분석 시에는 개별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드러난 키워드와 주제를 비교·대조하며 상위 범주를 찾아내었다. 분석 초기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크게 ‘대학 비진학·미취업을 결정하기까지의 배경’과 ‘고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일상’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각자가 독특한 삶의 맥락과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이들을 현재 ‘진로 결정 수준’과 ‘취·창업을 위한 구직활동의 적극성 정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그룹 지을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재분석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특히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현재 삶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 관련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현재의 삶은 진로

관련 배움과 경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대는 초·중반은 후기 청소년기로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학업이나 일 경험을 쌓고 경제적으로도 서서히 독립해 나가는 시기이기에, 진학이나 취·창업 선택하지 않은 청년들이 이 시기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는 배움과 경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삶의 다양성에 주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보다는 수정화(crystallization) 개념을 통해 타당도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Tracey, 2007). 본 연구의 주된 연구자료는 개별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다양한 교육 및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세 명의 연구자들이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함께 하며 해석의 풍부함을 더했다. 특히 유형화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타당성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가 3인에게 자문을 받아 이를 반영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12명의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과의 개별 면담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현재 삶의 양상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는 이러한 유형화에 대한 근거와 결과를 제시하고,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현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유형별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 분류 근거 및 유형화

초·중등 교육을 마친 청년들의 삶이 대학 진학을 비롯한 학업 또는 취업을 중심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할 때, 고졸 이후 비진학·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은 진학이나 취·창업을 위한 준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지가 없이 은둔 상태에 처해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김지경, 이광호, 2014; 남미자 외, 2019). 본 연구의 참여자 중 현재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은 없었기에,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연구 참여자들의 삶은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배움 및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본 연구 결과,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들은 각자의 맥락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진로 결정 수준(결정, 미결정)’과 ‘현재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적극, 소극)’에 따라 공통적인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유형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분한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유형화 기준 및 분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유형화 기준 및 분류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구직활동의 적극성 정도	
		적극	소극
진로 결정 수준	결정	김삿별(특성화고), 김은혜(일반고), 박민욱(일반고), 정민아(일반고)	공은철(특성화고), 최수연(일반고)
	미결정	이빛나(특성화고)	강호준(일반고), 김동민(특성화고), 이동휘(특성화고) : 김주환(대안고), 이다윗(검정고시)

연구진은 자료 분석 회의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였다. 이후 청년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거쳐, ‘목표 돌진형, 휴식·유예형, 방향 없는 성실형, 군입대 제약형, 경계 없는 탐색형’의 5가지 유형을 확정하였다. 당초 연구진이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양상을 구분한 두 축은 ‘현재의 진로 결정 수준’과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구직활동의 적극성 정도’였으나, 진로를 미결정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에 소극적인 연구 참여자들을 ‘군입대 제약형’과 ‘경계 없는 탐색형’의 두 가지로 다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두 축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이들 모두는 ‘진로 미결정-취·창업 소극’의 범주에 해당되지만, 이들의 현재 삶의 양상은 두 개의 독특한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구분한 다섯 가지 유형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참여자들의 현재 삶의 양상 유형화

유형	특성	참여자
목표 돌진형	진로 결정 - 취·창업 적극	김삿별, 김은혜, 박민욱, 정민아
휴식·유예형	진로 결정 - 취·창업 소극	공은철, 최수연
방향 없는 성실형	진로 미결정 - 취·창업 적극	이빛나
군입대 제약형	진로 미결정 - 취·창업 소극(군입대)	강호준, 김동민, 이동휘
경계 없는 탐색형	진로 미결정 - 취·창업 소극(다양한 경험 추구)	김주환, 이다윗

2. 유형별 삶의 양상

연구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졸업(또는 고졸 학력 취득) 직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지만, 연구가 진행되던 때는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다. 비슷한 또래

의 대다수 청년이 대학생의 삶을 살아가거나(김지경, 이광호, 2014)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며 부모로부터 경제적·정서적 독립을 추구해 나가는 이 시기에(전상진, 정주훈, 2006), 대학에 진학하지도 취업하지도 않은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1) 목표 돌진형: 명확한 진로 설정, 적극적 취·창업 준비

‘목표 돌진형’은 현재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한 상태는 아니지만, 명확한 진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적극적으로 취·창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연구 참여자들(김셋별, 김은혜, 박민욱, 정민아)이다. 이 유형의 연구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입학 전후에 자발적으로 대학 비진학을 결정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들이 대학 비진학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차이가 있다. 특성화고에 진학한 참여자(김셋별)는 원가족의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대학 대신 빠른 취업을 선택했던 반면, 일반계고에 진학한 참여자들(김은혜, 박민욱, 정민아)은 대학 입시 중심의 공부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대학 비진학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빈곤이 특성화고 진학이나 대학 비진학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나(남미자 외, 2019; 윤민중, 김기현, 한도희, 2015), 이 유형에 해당하는 일반계고 졸업생의 경우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보다는 대입이나 대학 서열에 대한 문제의식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시간이나 비용, 또는 낮은 사회적 시선 등을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김영미 외, 2018) 등이 고려된 것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인 서울에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대학이 아닌 이상 그걸 굳이 제가 가야 하나 이 생각이 조금 컸어요. 대학을 나와도, 물론 취업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대학도 아니고 원하는 과가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괜히 그냥 돈만 날리는 느낌 이게 너무 컸어요.” (김은혜, 1차)

목표 돌진형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현재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분야가 명확했다. 일반계 고교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년의 경우 대학 진학 이외의 진로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진로 결정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김지경, 이광호, 2013; 김영미 외, 2018), 본 연구의 목표 돌진형 연구 참여자들은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뚜렷한 진로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의 실무기술을 익히고 준비하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목표 돌진형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 관련 배움에 참여했다. 학원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관련분야를 준비하

는 사람들과의 스터디 모임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웠다. 인터넷 검색이나 트위터, 오픈 채팅 등을 통해 학원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찾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진로를 준비했다. 연구 참여자 박민욱과 정민아는 고교졸업 이후 현재까지 학원에 다니며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영상편집, 일러스트)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기술을 배우고 있다. 박민욱과 정민아의 일상은 학원 수업을 수강하고, 이를 혼자 복습하거나 익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민욱은 평일에 매일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학원 수업이 끝난 후에는 집에서 홀로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정민아의 경우 현재 학원 수업은 일주일에 하루 온라인으로 듣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 외 시간에는 대부분 온라인 공간에서 작업을 한다. 학원 수업을 함께 수강하는 사람들과 온라인 공간에서 모여 각자의 작업을 하고, 서로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한편, 창업을 준비하는 연구 참여자들(김은혜, 김셋별)은 비교적 여러 학원이나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다. 김은혜와 김셋별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 관련 정보나 프로그램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스스로 찾아가며 배웠다. 김은혜는 고졸 직후 떠난 유럽여행에서 가죽 공예에 매료된 이후, 현재까지 8년 가까이 가죽 공예를 익히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학원을 세 군데 이상 다니며 다양한 스타일의 가죽 공예를 배우고, 창업을 준비하면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나 멘토링에도 참여했다. 이외에도 창업에 필요한 재테크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독학하기도 했다. 김셋별 또한 직장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공부해 취득하였고, 퇴사한 후에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김셋별은 “취업하자마자 들어가 있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진로 관련 정보를 많이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딩을 배우고 싶어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다닐 수 있는 학원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이, 목표 돌진형의 연구 참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워 나갈 수 있는 데에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또는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적 경제 활동이 뒷받침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특성화고 진학을 선택했던 연구 참여자 김셋별을 제외한 대부분의 목표 돌진형 연구 참여자는 학원비와 같은 지출의 일정 부분을 부모로부터 지원받고 있었다. 특히 박민욱과 정민아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비교적 장기간 진행되고 학원비도 비싼 편이었다. 연구 참여자 김은혜 또한 가죽 공예 분야 창업을 위한 준비를 지속하며 일정 부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꾸준히 받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대학 등록금을 대신한다는 명목이나 학원 비용 등 특정 항목에 한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애들보다는 내가 돈을 더 먼저 벌게. 기간(은) 이 정도로 하자.” 그래가지고 (부모님께서) 그럼 OK. (연구자: 하지만 그때까지는 좀 지원해 달라, 내가 배우는 거나 이런 것들?) 네. 대학

안 가니까. 컴퓨터 필요한 것도 다 제가 돈 모아서 사고, 알바해서 사고 그러니까 딱히. (부모님께) 돈 빌릴 때도 계약서 쓰거든요, 저희 집은. (정민아, 1차)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지만, 근데 저희 부모님이 알바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물론 학원 비용이나 이런 건 자기들이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너무 노는 건 안 된다. 사람이 그래도 사회생활도 좀 하고 돈도 벌고 해야지 좋다 해서, 알바는 꾸준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김은혜, 1차)

이에 반해, 특성화고 졸업생인 연구 참여자 김셋별은 중학교 졸업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였다. 김셋별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며 모아둔 비용과 퇴직금, 그리고 퇴직 이후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정부 지원 등을 통해 교육비와 기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별고서 바로바로 이렇게 배웠던 거라서 좀 괜찮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딩 같은, 지금 새로 배울 코딩 같은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에서 이제 들어오는 돈이나 아니면 퇴직해서 퇴직금 받은 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준비할 계획이에요. (김셋별, 1차)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목표 돌진형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모로부터 지원받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이를 스스로 감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러한 경제적 토대 위에서, 학원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이후 진로를 준비했다. 목표 돌진형 연구 참여자들이 현재 미취업 상태임에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배움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있거나 취업 기간 모아둔 자금 등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2) 휴식·유예형: 명확한 진로, 소극적 취·창업 준비

연구 참여자 중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분야가 명확하지만, 현재 적극적으로 취·창업을 준비하지는 않는 ‘휴식·유예형’도 있다. 연구 참여자 공은철과 최수연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각각 특성화고와 인문계고를 졸업한 공은철과 최수연은, 목표 돌진형 연구 참여자들과 유사하게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분야나 진로 목표는 뚜렷한 편이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진학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으며, 아르바이트나 직업교육 위탁과정 등을 통해 일찍이 자신의 진로 분야를 개척해왔다.

연구 참여자 최수연은 고3 때 위탁 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으며 시각디자인 분야에서의 꿈을 발전시켰다. 고교 진학 당시 학업이나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이 크게 없어 특성화고 진학도 고민하였지만, 선입견과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인문계에 진학한 경우였다.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선택을 회피하다가, 부모님과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위탁과정을 통해 컴퓨터 관련 직업교육을 받기로 선택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일반고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권신영, 2021). 하지만 다른 일반고 출신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최수연이 재학하였던 학교는 위탁과정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해 각자의 직업을 갖고 있는 최수연의 부모 또한 자녀들에게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권하는 편이었다.

최수연은 위탁과정 중 해당 분야가 자신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 변경 기간을 이용하여 시각 디자인으로 분야를 바꾸었고, 이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등의 준비를 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는 웹 디자이너로 취업하여 일하기 시작했고, 두 번의 이직을 거치며 해당 분야에서의 커리어를 쌓아왔다. 최수연은 그간의 직업 경험이 자신의 진로 방향성을 뚜렷하게 해준 학습의 경험이라고 해석했다.

상세 페이지를 제가 위탁 다닐 때는 별로 안 했었거든요.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거기 가서 만들면서 뭐 맞는 문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배우고 여기저기 사이트도 많이 참고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배우는 게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하면서 많이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최수연, 1차)

한편, 공은철은 중학생 때부터 학교 가는 것을 싫어했고, 특성화고에 진학한 이후에도 “학교 갈 시간에 돈 벌고” 싶다는 생각에 자퇴를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쪽 요리사가 되고 싶었고, 언젠가는 요식업 창업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공은철은 고등학교 졸업 후 어머니의 권유로 요리학원을 2개월 정도 다닌 경험이 있었으며, 요식업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그는 주방 아르바이트 일을 통해 요식업계를 이해할 수 있었기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창업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 평가하였다.

사장님들의 태도. 대표님들이 하는 거가 많이 보이죠. 그냥 요식업 하려면은 가게에 또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이런 거 막 보는데 이런 게 다 사장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공은철, 2차)

이처럼 휴식·유예형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 목표를 명확히 정한 상태에서 미래의 취·창업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목표 돌진형과 달리 진로 목표와 관련한 활동이

나 배움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의 소극적인 태도를 ‘잠깐의 휴식 기간을 보내는 중’이라거나 ‘한 군데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는 성격’ 등을 이유로 들어 설명했다. 최수연은 현재 적극적으로 무엇을 배우거나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 여행하고 잠시 쉬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공은철은 구직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한 군데에 좀 오래 있지 못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 등에서 오래 일했던 경험이 없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에서의 일 또한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음을 덧붙였다.

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이 유형의 연구 참여자들이 현재 진로 관련 배움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운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다. 휴식·유예형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었고, 자신이 직장에 다니며 모아둔 돈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최수연은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소비하며 휴식기를 보내고 있고, 공은철은 번번이 짧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두기 일쑤였기에 돈을 모을 여유는 없었다. 그렇기에 최수연과 공은철 모두 국비 지원이나 자격증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의지가 있음에도, 현재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휴식·유예형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 목표가 뚜렷함에도 이를 준비할 여유가 없다는 점은, 진로 성숙도가 높은 청년일지라도 실제 취·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한 예비적 직업 탐색 행동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이만기, 2014)와 맥을 함께 한다. 나아가 휴식·유예형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진로 목표가 분명한 비진학·미취업 청년이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목표 관련 탐색과 준비를 가능케 하는 시간적·경제적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3) 방향 없는 성실형: 불분명한 진로 설정, 적극적 취·창업 준비

‘방향 없는 성실형’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이빛나)는 현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지만, 경제적 형편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으로 구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고등학교 진학 이전, 이빛나는 가정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일찍이 가게에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는 취업하여 쉽 없이 구직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꾸준한 구직활동과 별개로, 일관성 없는 직업 경험을 거쳤다. 이빛나는 고등학교 졸업 전 취업에 성공하여 고3 때부터 사무직으로 중견기업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사수의 괴롭힘으로 퇴사한 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이전 경력과의 비관련성과 나이 등을 이유로 1년 조금 넘게 일하고 다시 그만두었다. 이빛나는 1차 면접 당시에는 지인의 회사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2차 면접 시에는

단기 프로젝트의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상태였다.

이처럼 방향 없는 성실형 청년의 경우, 꾸준히 경제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과 관련된 자기 계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특성화고 재학 당시 회계 전공이었던 이빛나는 졸업 이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산회계 자격증 1급을 취득했으며, 고용노동부 주관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했다. 그는 자신이 이전 경력과의 연결성이나 근무조건 등에 나름의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구직활동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면담 기간에도 이빛나는 열다섯 군데 정도의 일자리에 지원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새롭게 시작한 6개월 단기 프로젝트의 계약직의 경우 향후 이쪽 분야에서 일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선택했으며, 일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다른 자격증 공부를 시작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나아가 그는 언젠가 대학에 진학해 자신의 스펙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는 바람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빛나는 여전히 자신이 몰두하고 싶은 진로 목표나 분야를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사실 그게 제 가장 큰 고민인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문제예요. 그냥 정말 직업, 그러니까 취미로 하고 싶은 것도 사실 없고. 그냥 사회적으로 누가 물어보면 진짜 좀 평범한 대답, 이런 거밖에 안 하게 되고. (이빛나, 1차)

특히 이빛나의 비연속적 직업 경험 및 불분명한 진로 결정은 그가 오랫동안 감당해온 생계에 대한 책임감과 떨어트려 이해할 수 없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특성화고 진학을 선택했던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빛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돈이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도 간간히 아르바이트하며 용돈을 벌었다. 고3 때 취업하게 되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고, 오히려 부모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서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에 대해 여전히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

(취업 후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바라시는 게 약간 느껴져서 그게 좀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바라다는 게?)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는지 약간 이런, 정말 약간 너무 현실적인 것들. 엄마한테 선물을 해달라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저는 솔직히 진짜 솔직히 엄청 막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죄송하긴 한데. 그냥 의무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빛나, 1차)

이처럼 방향 없는 성실형 연구 참여자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꾸준히 적극적으로 취·창업 준비를 시도하고 이와 관련된 자기계발에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안

정한 경제적 기반은 방향 없는 성실형 청년으로 하여금 진로를 충분히 탐색하여 목표를 만들어 갈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하고, 관련성이 부족한 여러 분야를 표류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하도록 이끌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시간 빈곤을 초래하여 진로 모색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남재욱 외, 2018), 미래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었다.

4) 군입대 제약형: 군입대로 인한 진로 결정 유예, 일시적 직업 찾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며 취·창업 활동에도 소극적인 연구 참여자 중에는 그 이유가 군입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입대 제약형’이 있다. 연구 참여자 강호준, 김동민, 이동휘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강호준과 이동휘는 면담 참여 당시 곧 입대를 앞둔 상황이었고, 김동민은 입대 후 진로를 고민하려 했으나 입대를 유예한 채 휴식기를 보내고 있었다.

군입대 제약형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군 복무 기간은 이들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몰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자 불가피하게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일반고를 졸업한 연구 참여자 강호준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고, 졸업 후 경찰 시험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다. 어려서부터 법을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경찰이라는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최근까지 강호준은 자신의 진로 목표가 뚜렷했고, 고졸 이후의 일상도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와 운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입대 날짜가 다가오면서 강호준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보게 되었다. 경찰 시험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첫 시험에서 아쉽게 불합격했고, 곧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니 공부에 동력이 떨어졌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경찰이 된다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강호준은 입대 전 마지막으로 치르게 될 경찰 시험을 앞두고 있었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시험 준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은 군대에 입대한 후, 다시 공부를 시작할지 다른 진로를 선택할지 고민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무래도 군입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군입대에 대한 불안감이나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잡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시험에 온전히 집중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만 그래도 까먹지 않게 다져놓고 군입대 후에 준비를 하는 게... (강호준, 1차)

이동휘와 김동민은 모두 가정의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특성화고에 진학하였다. 현재는 군입대 이후로 진로 결정을 유예하고 입대를 기다리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동휘의 경우 대학 진학을 목표로 자격증 취득 대신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해왔지만,

가정 형편에 따른 부모님의 반대로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취업에 대한 준비 없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그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이동휘는 면담 기간에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구직활동을 하면 늘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 경험이 입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차라리 빨리 군대에 다녀와서 “확실히 취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동휘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아직 깊이 고민하지는 않았다. 우선 입대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돈을 많이 모아두고, 제대 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생각이다.

요즘 생각하는 건, 애초에 취업을, 군대를 지금 21살에 빨리 갔다가 더 안 늦어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디 가도, 저기 다니다가 안 되자마자 공장 같은 데 알아봤거든요. 거기에도 군대 갔다 왔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중략) 용돈벌이하다가 군대 들어갔다가 확실히 취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동휘, 1차)

김동민은 특성화고에 다니는 동안 공부에 흥미가 없고, 딱히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3 때 디저트 관련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가능한 빨리 군대에 다녀와서 아르바이트로 초기 자본을 마련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었다. 하지만 막상 고등학교를 졸업하니 군대를 미루고 싶어졌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으로 계속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거나 정보를 찾아본 적은 딱히 없었다. 현재 김동민은 자신이 이전에 구상했던 디저트 가게는 전망이 없다고 판단했고, 지속하던 피자 가게 아르바이트도 그만둔 상태다. 좀 쉬고 싶다는 생각에 일을 그만두었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 곧 다시 아르바이트를 구할 계획이다. 군입대는 내년 혹은 그 이후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군대를 들어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고” 정하려고 한다.

이처럼 군입대 제약형 연구 참여자들은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입대를 앞두고 명확했던 진로가 흔들리거나, 명확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들에게 군입대는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기 어렵게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이어왔던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장벽이 되기도 하였고(홍혜영, 강혜영, 2011), 한편으로는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이기도 했다.

5) 경계 없는 탐색형: 진로 설정보다 경험 축적, 의미 있는 활동 추구

‘경계 없는 탐색형’ 연구 참여자들(김주환, 이다윗)은 현재 진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취·창업 활동에도 소극적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 경계 없는 탐색형의 연구 참여자들은 농사나 대안교육, 봉사활동, 취미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들은 소액의 단기 알바, 청년 지원금이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당장의 경제적 수입 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자체에 더 의미를 두고 있었다.

20대 중후반인 이다윗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17세 때부터 10년 동안 게임중독으로 은둔 생활을 해왔던 연구 참여자다. 20대 초중반 시기 대부분을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은둔 청년으로 지냈기에, 그의 현재는 20대 초반 연구 참여자들의 상황과 비등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 사이 군복무도 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한 적도 있지만, 그는 늘 다시 게임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다 2년 전쯤 신앙적 체험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후 여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다윗은 현재 뚜렷한 진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교사로 근무했던 어머니는 은둔 시기부터 현재 까지 그가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해주었다. 이다윗이 최근까지 자신의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일은 봉사활동이었다. 그는 8개월 전부터 한 사회적 기업에서 주 3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에는 과거의 자신처럼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와 더불어 그는 은둔형 외톨이나 니트와 관련한 여러 활동에도 참여 중이다. 이다윗은 은둔형 외톨이들이 교류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오프라인에서 그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보건소나 니트 관련 단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도 활동한다.

더욱 최근인 2차 면담 당시, 이다윗은 봉사활동 시간을 줄여 자기 계발에 더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을 돕기 위해서는 자기를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다윗은 최근 독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도 책을 읽으며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내가 친구들을 돕는 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생각해보면 또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 사람들을 돕는 게 무작정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금방 일으켜줄 수 있는 반면에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진 사람은 도와주려다가 나까지 위태해질 수 있고 사람을 돕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다. 오래 걸리고 또 큰 희생이 필요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계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다윗, 2차)

한편, 연구 참여자 김주환은 부모의 지지에 힘입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대학 비진학을 선택했다. 그의 부모는 인권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로, 자녀들에게도 학업을 강요하지 않았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대학 비진학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윤민중 외, 2015)와 달리, 김주환을 비롯한 본 연구의 일부 연구 참여자들(강호준, 김은혜, 김주환, 정민아)의 대학 비진학 선택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부모의 지지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김주환은 아버지의 취미인 목공을 함께 하며 어려서부터 목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고, 자신과 잘 맞는다고 생각한 대안 고등학교에 진학해 목공을 계속하였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대학 진학이나 진로를 당장 결정하고 싶지 않아, 낮에는 농사를 짓고 늦은 오후부터는 수업을 듣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고민”의 시기를 보내기로 선택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수업은 “돈을 벌거나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 이곳에서의 생활에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었다. 또한 김주환은 입대를 내년으로 미루고 주말에 한 극단에서 스태프로 일하며 연극도 배우고 있다. 그는 대학에 진학하여 연극을 공부하는 것과 극단에서 연극을 배우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주환은 현재의 삶을 “고민보다 경험하는 시기”라 해석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확신을 갖진 못한 자신의 상황이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현재의 삶은 진로를 찾기 위한 준비과정이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삶 그 자체라는 것이다.

저한테 이 시기요? 어... 사실 고민할 생각으로 왔는데, 그런 ‘앞으로 뭘 해야 하지?’ (하는). 그런데 고민보다 경험하는 시기 같아요. 지금 되게 안 해본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고 있고. (중략) 뭔가 지금은 경험하는 단계이고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일하는 단계, 진로를 찾고 진로를 가져가고 일하는 단계를 나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냥 다 같은 삶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금하고 나중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은 무슨 단계이고 나중을 위한 준비 단계고 그러기보다, 그냥 지금을 살고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김주환, 1차)

이처럼 경계 없는 탐색형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로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자 애쓰며 현재의 삶에 충실했다. 이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경제활동을 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최대한 자신이 현재 의미를 두고 있거나 배우고 싶은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경계 없는 탐색형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당장의 진로 결정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의 축적이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물론 이들이 현재 충분한 자기 탐색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정서적 지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두 청년 모두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는 않은 편이었지만 이들의 부모는 일부 경제적 지원이 가능했고, 무엇보다 경계 없는 탐색형 연구 참여자들의 현재 삶의 방식을 든든하게 지지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삶의 양상을 그 특징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현재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유형화는 연구 참여자들의 현재 ‘진로 결정 수준’과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구직활동 적극성 정도’의 두 축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유형을 ‘목표 돌진형, 휴식·유예형, 방향 없는 성실형, 군입대 제약형, 경계 없는 탐색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유형은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삶이 단일하지 않으며, 각 유형별로 공유하는 특징이 있으면서도 각자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일상의 경험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은 그들의 진로 결정 수준이나 취·창업을 위한 적극성의 정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각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진로 관련 일상생활은 개인의 다양한 삶의 맥락 속에서도 두드러진 특징을 공유했다. 일례로 비진학·미취업 청년이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이나 경제적 배경이 대학 비진학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난 점이지만(김영미 외, 2018; 윤민중, 김기현, 2016; 이해정 외, 2019), 이러한 요인들은 그들의 진로 결정 수준이나 취·창업 적극성 정도 등에 따라 복잡하게 뒤얽혀 현재 삶의 양상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하지 않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처한 삶의 맥락에 따라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르기에 그들의 상황과 필요를 깊이 파악하여 섬세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유형을 예로 들자면, ‘목표 돌진형’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므로 이들이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맞춤형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휴식·유예형’ 청년들의 경우에는 창업이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강좌가 필요하나,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보다 유연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취·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방향 없는 성실형’ 청년들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자기 이해 및 적성 파악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아직 진로를 설정하지 않은 ‘군입대 제약형’ 및 ‘경계 없는 탐색형’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된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20대 초반이었으나, 졸업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20대 중후반 참가자들(김은혜, 이다윗)도 존재하였다. 고교 졸업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의 폭이 넓어진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20대 초중반 대부분의 시기를 은둔 상태로 보내며 방치되거나(이다윗)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고 배움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취·창업에 뛰어들기를 주저하고 유예하는 모습(김은혜)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졸 비진학·미취업 상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절한 초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긴 시간 비진학·미취업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년들의 관심 분야에 따른 ‘멘토’를 발굴하여 이들이 해당 분야에 실제 진입하기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20대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으로, 이들은 가정으로부터의 심리적·경제적 독립 및 사회진입을 준비하는 후기 청소년기(전상진, 정주훈, 2006)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 고졸 비진학·미취업 상황에 있는 청년들은 타인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제한적이며, 이들의 현재 삶이 펼쳐지는 양상은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정서적 지원 여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보통 이 시기 대학생은 대학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관계에 노출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관계망을 형성해 나가지만(박희진, 황정원, 2015),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들은 고졸 이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진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관계망을 찾기 어려웠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지 못했으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연결망을 쉽게 찾지 못했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사귀었던 소수의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나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여전히 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진학·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는 고졸 이후 사회에 던져진 청년들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줄이고, 이들을 점차 고립되어 가는 상황으로 내몰기도 한다. 따라서 고졸 비진학·미취업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모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단절된 인간관계를 확장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함으로써 니트 상태 장기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20대 초중반 비진학·미취업 남성 청년의 경우 군입대가 이들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군입대 제약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미필 청년들에게 군 복무는 학업이나 진로 준비의 걸림돌로 여겨지거나 혹은 진로 선택을 유예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기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들은 구체적으로 군 복무 시기에 어떻게 진로를 준비하고, 앞으로의 삶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진로를 설계하고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병무청, 2019), 연구 참여자 중 이를 알고 있거나 이용하는 이는 없었다. 군 복무 시기가 많은 남성 청년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 기간이 걸림돌이 아닌 청년들의 진로를 발견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입대 전’, ‘제대 후’ 공백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홍보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창업 관련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그들의 대학 비진학 과정뿐 아니라 현재 삶의 양상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기부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고졸 이전부터 현재까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자신과 세상을 탐색하며 적절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인 것과 같이, 빈곤이라는 경제적 배경이 청년들의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하고 있으며(남미자 외, 2019), 니트 상태 역시 빈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홍진주, 2020)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빠른 취업을 위해 특성화고를 선택한 경우가 있었으며, 고교 재학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였으나 가정 형편으로 인해 대학 진학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연구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전부터 해왔던 아르바이트를 고졸 이후 계속 이어가며 원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어야 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자신과 세상을 탐색할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이처럼 빈곤이 청(소)년들의 진학이나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남미자 외, 2019; 이혜정 외, 2018; 정수남, 김정환, 2017), 빈곤 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시간 빈곤과 진로 모색의 제약(남재욱 외, 2018)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경계 없는 탐색형’ 청년들의 경험은 비진학·미취업 상황에 있는 청년의 삶이 단순히 진학이나 진로를 준비하는 하나의 단계가 아니라, 현재 자신이 관심을 두는 일에 집중하며 자기 자신과 세상을 알아가는 배움의 시간 그 자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고졸 청년들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고 보고한 윤민종 외(2015)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고등학

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창업 준비하는 등의 통상적 경로를 따르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청년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은 문화예술 분야, 여행과 같은 자유로운 활동, 자원봉사 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연순 외(2013)에서 분류한 ‘대안활동형’에 해당하는 니트 청년들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특히 이 연구의 참여자들과 같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20대 청년들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알아가는 배움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로 및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느슨한 시공간이 필요하다. 비진학·미취업 청년을 위한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이 대학 진학이나 취·창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적 삶의 경로에 집중되어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년들이 이 시기를 각자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쫓는 배움의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대학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현재 삶의 양상을 유형별로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다음의 몇 가지 아쉬움을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우선 최근 사회적으로 은둔 청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현재 은둔 상태에 있는 니트 청년의 경험을 깊이 다루지는 못했다. 현재 은둔 상황에 있는 청년에게는 면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들을 연구 참여자로 섭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과거 긴 시간 은둔 생활을 했고 현재 은둔 청년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이다윗을 통해, 은둔 청년의 삶에 대한 부분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은둔 청년이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은둔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와 그들의 은둔 경험을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은둔 청년과 같이 더 다양한 청년의 삶이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이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지 않은 20대 초·중반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양상을 비교·대조하며 이해하기 위해 20대 중후반인 2명의 청년(김은혜, 이다윗)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년들의 비진학·미취업 상황을 보다 장기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연구 대상이 확대되어 초점이 명료해지지 못한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연령대나 특징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장기간 비진학·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에 대한 연구’, ‘대학 중퇴 후 미취업 중인 청년에 대한 연구’, ‘부모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녔으나 자녀는 대학 비진학을 선택한 청년의 경험’ 등도 깊이 연구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권신영 (2021).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위탁과정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인문사회**21, 12(3), 2477-2491.
- 김성아, 노현주, 김기태, 김문길, 안수란, 신영규, 임덕영, 정세정, 함선유 (2022).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 (정책보고서 2022-35).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안국, 신동준 (2007). 고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 실태. **산업노동연구**, 13(2), 125-147. doi:10.17005/kals.2007.13.2.125
- 김영미, 김진경, 윤민중 (2018). 일반고 청소년의 대학 비진학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비진학 결정의 배경과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4), 455-474. doi:10.24159/joec.2018.24.4.455
- 김정선, 김지영, 추주희 (2016). 고졸 청년여성의 취업과 직장 경험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특성화고 졸업자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6(2), 71-96. doi:10.35273/jec.2016.6.2.004
- 김지경, 이광호 (201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II: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13-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이광호 (2014). 정책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관점에 관한 소고. **청소년학연구**, 21(3), 285-306.
- 김진원, 김아람, 이로미, 김은비, 김주희(2022).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태와 과제** (정책연구 2022-13).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남미자, 박진아, 이해정 (2019).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의 생애사 연구: 일반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5(1), 25-52. doi:10.26857/JLLS.2019.2.15.1.25
- 남재욱, 김영민, 한기명 (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221-262. doi:10.16999/kasws.2018.49.1.221
- 노혜진 (2021). 니트상태를 경험한 청년들의 생애사. **보건사회연구**, 41(2), 44-63. doi:10.15709/hswr.2021.41.2.44
- 문상균, 최재성 (2017). 특성화고 출신 고졸 여성의 선취업 후진학 선택에 관한 분석. **여성연구**, 94(3), 79-108. doi:10.33949/tws.2017.94.3.003
- 박진아, 남미자, 이해정 (2017). **대학 비진학 청년들의 빈곤경험과 노동경험: 일반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희진, 황정원 (2015). 개인 및 대학특성이 대학생활을 통해 형성하는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 대학생활 적응과 소속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42(2), 109-139. doi:10.22804/jke.2015.42.2.005

- 병무청(2019.5.2.). ‘맞춤형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모든 병역의무자로 확대. 보도자료.
- 엄수정, 송요성 (2021). **대입 N수생의 삶과 문화** (이슈페이퍼 2021-05).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고졸 청년 근로빈곤층 사례 연구를 통한 정책 대안**. 서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윤민중, 김기현, 한도희 (2015). **대학 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민중, 김기현 (2016).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3월 24일).
- 이건만 (2007).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계급갈등: 학벌자본의 이론화를 향해. **교육사회학연구**, 17(4), 63-85. doi:10.32465/ksocio.2007.17.4.003
- 이로미, 박가열, 정연순 (2010). 청년니트 유형과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구직희망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3(1), 153-175.
- 이만기 (2014). 특성화고 고졸청년층의 진로준비 및 진로성숙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8), 4961-4971. doi:10.5762/KAIS.2014.15.8.4961
- 이은정 (2007).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고등직업교육으로의 진입 및 근로이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표 (2004). 여성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실태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7(1), 117-140.
- 이혜정, 박진아, 남미자 (2018).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에게 있어 고등교육의 의미. 2018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임언, 김지영, 박동열, 임해경, 정혜령 (2016). **고졸 청년 취업자의 일, 학습, 삶에 대한 종단적 내러티브 탐구** (기본연구 2016-11).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영식, 정경은, 김윤나 (2011). 비진학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와 정책 방안. **청소년학연구**, 18(12), 583-608.
- 임유진, 정영순 (2015). 고졸청년의 좋은 일자리 이행가능성 영향요인 분석: 남성과 여성 비교. **한국사회정책**, 22(1), 403-433.
- 전누리, 김은경, 공현 (2019). **대학 비진학 청년 현황 및 심층면접조사: 특성화고 졸업자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전상진, 정주훈 (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서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6), 261-285.
- 정수남, 김정환 (2017). ‘잠재적 청년실업자’들의 방황과 계급적 실천. **문화와사회**, 23(0), 195-264. doi:10.17328/kjcs.2017.23.005

- 정연순, 변정현, 황여정, 宮本みち子 (2013). 2013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 니트 실태조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최동선, 임언, 오석영, 정혜령, 김태환 (2014). 고졸 초기경력자의 직장선택과 적응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직업교육연구*, 33(6), 183-205.
- 최지수, 김은비 (2019). 고졸청년의 미취업 원인에 대한 인식이 구직기준(취업눈높이)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9(1), 145-166. doi:10.35273/jec.2019.9.1.007
- 통계청 (2023). 2023년 4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 홍진주 (2020). *청년니트의 사회적 배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혜영, 강혜영 (2011). 남자대학생의 군입대계획 수준에 따른 군 장벽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39-155.
- Clandinin, D. J., & Connelly, M. (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역.). 파주: 교육과학사. (원저는 2000에 출판)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E].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원저는 2007년에 출판)
- Creswell, J. W. (2012).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and Evalu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 Eurofound. (2012). *NEETs-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Characteristics, costs and policy responses in Europ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Flyvbjerg, B. (2014). 사례 연구. *질적연구핸드북 제4판*. 443-465. [Case Study. In Denzin, N. K., & Lincoln, Y. S. (eds.). 301-316.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이명석 등 역.).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원저는 2011년에 출판).

ABSTRACT

A qualitative case study on categorizing the career exploration experiences of high school graduate NEETs' in South Korea

Kim, Aram* · Kim, Juhee** · Kim, Jinwon***

In Korean society, the number of NEETs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is increasing, yet there is limited research on their experiences, particularly those who do not pursue college after high school. This study categorizes high school graduates identified as NEETs based on their career exploration experiences. Through a qualitative case study, 12 participants engaged in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Our analysis identified two pivotal factors influencing high school graduate NEETs: their level of career determination and job-seeking attitudes. These factors resulted in the identification of five distinct NEET types: 1) proactive job-seekers, 2) individuals taking gap years, 3) disoriented hard workers, 4) individuals constrained by military enlistment, and 5) borderless explorers. It is noteworthy that military enlistment among males in their early 20's contributes to their temporary NEET status, especially when combined with an inactive approach to job seeking due to career indecision. Additionally, certain NEETs, such as proactive job-seekers and borderless explorers, choose not to pursue higher education. Instead, they strategically plan their careers during high school and explore alternative paths outside of college.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pressing need for more flexible support policies tailored to the unique perspectives and circumstances of NEETs in Korea.

Key Words: high school graduates, NEET, qualitative case study

* Sookmyung Institute of Global Governance, Research Professor

** University of Michigan, Ph.D. Student

***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 Associate, Research Fellow, corresponding author, kjw0912@gie.re.kr